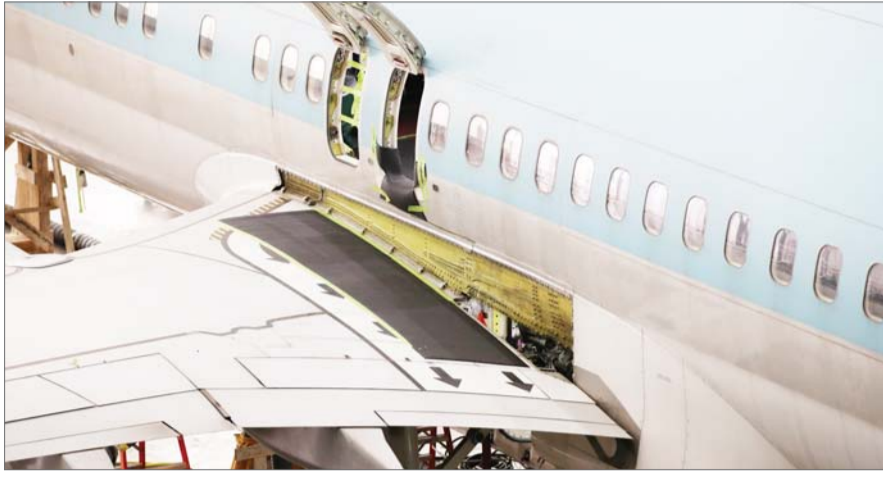


가득이나 힘든 데... 기체결함, 구조조정 기폭제 되나

동력 잃은 항공업계 <下> 보잉 리스크

737맥스 이어 737NG까지 결함 내년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 국내 운항 150대중 13대서 균열

이스타, 2대 모두 운항으로 '타격' 완전 자본잠식 가능성도 모락모락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보잉737NG 동체 균열과 관련해 항공기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

보잉사의 기체 결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구조조정이 야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지난해부터 737맥스8 기종의 기체 결함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기를 들여와 새로운 전략을 펼치려던 국내 항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세계에서 737맥스8의 운항이 중단되며 운항 재개만을 기다려야 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737NG 계열 항공기의 동체 균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잉 리스크'가 더 확대됐다. 올해 들어 항공사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잉 사태가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잉사는 여전히 737맥스8의 운항 재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사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맥스 기종의 상업용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운항 재개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전 항공기에 대한 개별 점검 계획을 내놓으면서 내년 737맥스8이 다시 운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737맥스8 기종의 운항 중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최근 737NG 계열 항공기에서도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는 데 있다. 737NG 계열 항공기는 국내에 총 150대가 운항 중인데 그 중 대한항공(5대)·제주항공(3대)·진에어(3대)·이스타항공(2대) 등 총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내에서 보잉 기술진에 의해 수리 중으로 점차 운항이 재개되고 있으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달 중 미국 보잉 MRO(유지보수 정비센터)에서 부품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운항이 정지돼 항공사는 그만큼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기 각각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1대가 내년 1월에 수리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항공기 운항 정지에 따른 적절한 보상안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내 항공사들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경우, 이미 737맥스8 항공기 2대의 운항 중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737NG 2대도 당분간 운항이 불가능해져 치

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부진한 업황과 더불어 이스타항공의 완전 자본잠식 가능성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잉 사태에 의한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이 항공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항공안전이나 정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한 항공사가 필리핀에 회항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재무적 구조가 안 좋은 항공사일수록 정비를 소홀히 하거나 2번 할 것을 1번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기체 결함 등의 문제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737맥스 사태는 두 가지 문제로 불 수 있다. 항공기 모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경영 여건이 안 좋은 항공사들이 정비를 소홀히 한다든지 안전 문제에 둔감해져서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결국 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항공 안전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겔 폴드' 출시 60개국 확대 2세대 클램셀 내년 2월 첫 선

<조개껍질 형태>

출시 물량 50만대 완판행렬
클램셀 '겔 폴드'보단 가격 ↓



이 높다. 디스플레이와 힌지 구조 측면에서 볼 때 클램셀 형태가 갤럭시 폴드에 비해 생산 단가와 설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사진)'가 지난 9월 국내에서 첫 출시 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전 세계 29개국에서 출시한 갤럭시 폴드를 내년 초까지 60여 개국으로 늘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부터 내년 2월까지 갤럭시 폴드를 베트남,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등 30여 개국에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판매량 증가를 꾀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갤럭시 폴드 물량은 당초 목표했던 100만대는 안 되고, 50만대 수준이 팔릴 것"이라며 "12월 한 달 남았지만 출시된 물량은 거의 다 완판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내년 2세대 폴더블 폰으로 클램셀(조개껍질) 형태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출시일은 내년 2월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회의'에서 클램셀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소개한 바 있다.

클램셀 형태를 채택한다면 가격은 갤럭시 폴드보다 내려갈 가능성

클램셀 디자인은 조개껍질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모습에서 가져온 말로 화면을 수직으로 접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 '메이트X'가 모두 세로 방향으로 접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가장 먼저 클램셀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업체는 모토로라다. 모토로라는 지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폴더블 폰 '모토로라 레이저'를 공개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가격은 1500달러(약 177만원)로 현재까지 나온 폴더블 폰 중 가장 저렴하다. 갤럭시 폴드 4G와 메이트X의 중국 출시 가격은 각각 265만원, 287만원이다. 화웨이와 샤오미도 최근 클램셀 형태의 폴더블 폰 특허 출원하면서 내년 폴더블 폰 품팩터 대세는 클램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세운 기자 yuni2514@

“안전한 건설현장, 신중년 일자리”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지킴이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2020년에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00명('19년 150명, '20년 채용 확대 예정)
- 신청자격 | 건설 및 산업안전분야 경력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장년층 퇴직자
- 업무내용 | 중·소규모 현장 상시 순찰 등 건설재해 예방 활동
- 접수기간 | 2020년 1월~2월경 (공단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안내 예정)
- 근무기간 | 약 10개월(예정)
- 급여·복지 | 7만원/월, 중식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제공 (출장비는 공단 규정에 근거, 별도 지급)

